

# '남원발전연구소' 문 열다

# 전북형 늘봄, 초1 대상 전면 시행

### 지역·대학 협력사업 발굴...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추진 동력

### 도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위한 프로그램 등 준비 마쳐

### 415개교 초등 1학년 1만479명 참여 희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남원발전연구소'가 28일 이음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권덕철 JBNU 지역발전연구원장이 겸임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오봉 총장과 권덕철 JBNU 지역발전연구원장 등 전북대 주요 보직자들과 최경식 남원시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경태 남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글로벌캠퍼스30 사업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 내에 JBNU 지역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14개 시군의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발전연구소 설립에 나섰다.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지난해 3월 남원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날 개소한 남원발전연구소는 JBNU 지역발전연구원 산하 연구소로서 전북대와 지자체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의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소멸방지 대책, 지역 기업의 애로문제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한 헤드포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폐교된 서남대 캠퍼스를 재생해 남원글로벌캠퍼스를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 1천명 이상을 유치해 지역에 정주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캠퍼스30 사업의 실행 계획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역 특화 분야의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 제안, 남원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역과 대학의 협력사업 발굴, 지식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지역 리리즈 사업 공모와 성과



'남원발전연구소'가 28일 이음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경태 남원시의회 의장, 권덕철 JBNU 지역발전연구원장 등 전북대 주요 보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관리, 취·창업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지원, 제도 규제 혁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날 연구소 출범을 기념한 제1회 지역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추진과 남원시 산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가 개소됨에 따라 남원시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추진과 연계, 지리산권 교육 중심도시 남원의

기틀을 만들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남원발전연구소 개소는 한 평범한 지역발전 연구소의 시작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 연구소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남원발전연구소가 남원시의 당면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또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남원=김기두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북형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개념으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학교밖 까지 확대해 늘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전북형 늘봄학교의 특징이다. 전북형 늘봄은 학교 안에서는 오후 6시까지, 학교밖에서는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에 희망하는 초1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초1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학교 컨설팅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늘봄학교 운영 공간 및 프로그램, 감사, 인력 등을 준비했다.

또한 지자체,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보하는 한편, 14개 교육지원청별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학교안 전용교실과 겸용 교실은 물론이고 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한 학교밖 공간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학교안 전용교실은 1,136개며, 특별실 및 일반학급 교실 겸용은 1,874개다. 여기에 242개의 학교밖 공간을 포함하면 총 3,240개의 늘봄 서비스 공간이 확보됐다.

또한 초1 교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교사들의 업무 및 협의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교사연구실 등의 환경개선에 힘 쏟았다.

이와 함께 늘봄 전담인력도 배치·완료했다. 7월 1일자로 300명의 늘봄 실무사를 채용,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1교당 1명 또는 순회 배치했다.

과밀·신도심 지역의 학교안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밖 늘봄도 확대했다. 작은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협동조합, 교육농장, 지역아동센터 등 21개 기관을 선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의 늘봄학교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학부모들의 호응과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늘봄학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공백, 경력 단절,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함께 해요"

### 내달 27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413개 초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본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경찰서, 민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9월 27일까지 도내 41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위해요소와 교통안전,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등·하교 시간 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종사자 의무 안전교육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등 안전 수칙 안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 보행을 위한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또 유해환경 및 식품 분야에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주변 유해시설 합동단속 참여 △학교 식생활관, 식재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및 식중독 예방·점검 △학교 급식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관계부서 등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정부포상 대상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교육에 한평생 헌신한 노고에 감사"

### 전북자치도교육청,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황조근정훈장 11명 등 총 78명... 교육발전 기여 공로 인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4년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년퇴직 정부포상 대상자 78명은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헌신적인 공직생활로 귀감이 되는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 전주이름유치원 이명자 원장과 10명 △홍조근정훈장 이리서초등학교 이혜숙 교장과 26명 △녹조근정훈장 청하중학교 김춘

호 교사와 24명 △옥조근정훈장 남원월라초등학교교장보정유치원 윤인정 원장과 9명 △근정포장정읍제일고등학교 류호성 교사와 3명 △교육부장관표창장 주한들초등학교 이명희 교사와 2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에 한평생 헌신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전북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 하계 반도체 공정 실무교육

전북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단장 김진수)이 하계 반도체 공정 실무교육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도체 융합전공 학생 3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반도체 증착 공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비롯해 이 공정에 이용되는 장비의 이해와 공정 방법에 대한 다채로운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반도체 공정 및 물성분석에 이용되는 4종의 장비(DC Sputter, E-beam evaporator, PECVD, SEM)에 대한 실무교육과, 반도체공정연구센터에서의 공정실습 등을 실시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입학처, 31일·내달 7일 찾아가는 입시상담 카페 운영

전주대학교 입학처는 '2024년 찾아가는 입시상담 카페'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생활권을 직접 방문해 1:1 심층 상담을 제공,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전주 객사, 전주 신시가지, 전북대 일대, 익산 모현동, 군산 수송동 내 위치한 카페 등 5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입시상담 카페는 8월 31일, 9월 7일 두차례 진행되며,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학생들은 30분 단위로 상담을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2025학년도 입학전형별 특징과 전년도 입시 결과 등 학생별 적합한 전형 설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s://iphak.jjac.kr/) 또는 온라인 설문폼(https://forms.gle/GkEZeBP9WjAvM89C7)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주대학교 입학처는 17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학은 28일 전북혁신도시에서 농생명·ESS바이오 혁신융합캠퍼스를 착공식을 진행했다.

## 농생명·ESS바이오 혁신 융합캠퍼스 '첫 삽'

### 전주기전대, 혁신도시에 착공 2026년까지 총 31여억원 투입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28일 전북혁신도시에서 농생명·ESS바이오 혁신융합캠퍼스를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 20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1여억원을 들여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혁신융합캠퍼스에는 강의실 6개, 실습장 3개동, 학생 체육시설, 다목적 협

력공간 등 1,032㎡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2월 개교 예정이며, 4개 학과(치유농업과, 말산업스�포츠재활과, 반려동물과, 이차전지소재부품과) 캠퍼스 이전을 통해 총 300여명의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조희천 총장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바이오 산업수도 비전 실현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및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과의 교류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 35명 증원

### 전북교육청, 총 220명... 도내 전체 배치율 76%에 달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어민보조교사 35명을 증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내 원어민보조교사는 총 22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순회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339곳, 중학교 201곳, 고등학교 39곳에서 외국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학교급별 배치율을 보면 초등학교 81%, 중학교 96%, 고등학교 29%로, 도내 전체 학교 배치율은 76%에 달한다.

특히 2학기에는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아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증원된 인원을 포함해 하반

기 신규 선발된 79명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국립국제교육원(EPIK)이 주관하는 7박 8일간의 사전연수를 이수, 학교별 자체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외국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실생활 위주의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어민보조교사 활용수업사업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사교육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취창업처

### 기업채용 맞춤형반 운영

전주비전대학교 취창업처(처장 박심훈)는 지난 27일 '2024 기업채용 맞춤형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양성을 위해 'Vision지역인재공무원반'을 개설해 학습관리, 공무원 선배 멘토링 및 합격 노하우 전수, 교재 지원 및 면접 심화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심훈 처장은 "Vision지역인재공무원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 매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학습역력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기업채용 맞춤형반은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